

#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 일시 : 2021. 12. 27(월), 13:30~15:00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층 회의실(온나라 영상회의)
- 
- 보고안건
    1. 202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
    2. 연구원 경영혁신 및 중기발전계획
  - 심의안건
    1. 정관 일부개정(안)
    2. 직제 및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3.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4. 용역사업규정 일부개정(안)
    5. 2022회계년도 사업계획(안) 및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승인 신청
  - 기타안건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 

## 의결내용

(사회자) 성원보고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이사 28인중 26인이 출석하시어 과반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사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회자) 참석이사 및 연구원 간부 소개

(이사장) 인사말씀

여러 이사님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유달리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연말연시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이사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다음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음. 보고안건이 2건, 심의안건이 6건, 기타안건 1건인데 보고안건을 먼저 진행하겠음.

**o [이사장] 보고안건은 2건으로, 먼저 “202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겠음**

(총무과장) 202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

\* 설명내용은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의견이 없으시면 제1보고안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음.

**o [이사장] 두 번째 보고안건인 “연구원 경영혁신 및 중기발전계획”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을 하겠음**

(기획조정실장) 연구원 경영혁신 및 중기발전계획

\* 설명내용은 자료 참조(생략)

(김태영) 연구원이 최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 늘 접하는 내용이라 익숙하기도 하고 과거에 비해 다이나믹한 연구원 운영을 할 거라는 포부가 느껴집니다.

(김재훈) 전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짜임새 있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먼저 43p에 운영 측면이 제시가 되었는데, 운영이 잘 되지 못하면 특히, 중

기계획이다 보니 그 사이에 많은 환경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면 연구수요도 달라질수 있고 또 그것을 연구원에서 잘 파악하셔서 운영해 주셔야 하는데 다만, 2년 단위 계획이 꼭 2년 단위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년 단위로 하는 연구원의 충분한 이유도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기본은 2년 단위로 하되 중간중간에 아주 심각한 환경변화 및 연구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중기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유연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장) 연구원에서 깊이 고민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올해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2단계 재정분권, 내년에 지방의회 법률이라든지 자치경찰제 본격 출범 등 지방정부 단위에서 변화가 많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단계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이 오셔서 연구원의 경영혁신과 연구역량 강화의 두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평가체계와 관리체계를 갖추는 점에서는 늦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32p에서 시도연구원과 네트워크 강화 부분은 현장에 와서 보면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지역현안이라든지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해서 과제 발굴 등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연구원의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광역단위의 초광역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하실 때 연구원에서 광역단위로 협력할 수 있는 추진 조직을 매칭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동연구 과제로 지역단위에서 연구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과제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의 경영혁신과 중기발전계획은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장) 본 건에 대해서는 제출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면 중기발전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사장] 심의안건은 총 6건으로, 먼저 제1심의안건인 “정관 일부 개정(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총무과장) ‘정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보고 안건에서 설명드린 ‘경영혁신 및 중기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증원하여 구체적인 실천력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0 [이사장] 제2심의안건인 “직제 및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총무과장) ‘직제 및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0 [이사장] 제3심의 안건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총무과장)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o [이사장] 제4심의안건인 “용역사업규정 일부개정9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총무과장) ‘용역사업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o [이사장] 제5심의안건인 “2022회계년도 사업계획(안) 및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기획조정실장) ‘2022회계년도 사업계획(안) 및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이재원) 리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재정공제회가 지정되었는데 타당성조사사업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반영되었는지 설명되었는지?

(기획조정실장) 로맥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재원) 로맥은 서울에 있고, 리맥은 원주에 있는데 이러한 지리적 여건이 감안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기획총괄부장) 지난달까지 행정안전부 등 3자가 몇가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내년도 과제수를 산정하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리적인 차이는 있으나, 리맥이 그 동안 쌓아온 역량, 인력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 리맥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 의회에 출연금 논의를 하면 의원님들 생각은 지방을 위해 조금 더 관심과 활동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의정아카데미, 의정브리프 등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과제에 대해서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과제

를 도출하여 연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에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시도의회협의회와 MOU를 체결하면서 공동 연구, 협력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내에 지방의 정센터가 설치되어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해서 그동안의 성과, 앞으로의 발전적 아젠다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 그 안에는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수행할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와 더불어 시도 연구원, 시도의회, 지자체와 같이 협업하여 공동연구, 공동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0 [이사장] 제6심의안건인 “202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승인 신청”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총무과장) ‘202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승인 신청’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0 [이사장] 다음은 기타안건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합리적 산정 기준” 을 상정 논의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을 하겠음**

(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합리적 산정 기준’ 제안 설명

\* 설명내용 자료 참조(생략)

(이재원) 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재정분권 7:3 논의와 관련하여 정부 및 기재부와 논쟁했을 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쌓아둔 연구실적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음. 재정분권 6:4의 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출연을 위해서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람.

(충청북도) 이 문제는 매년 예산심의 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차등화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균등출연 사유로 전 시도 공통적인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문제로 공동출연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통 지원에 관한 부분은 50%정도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각 지역의 재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방세연구원과 공기관평가원도 공통 사업들을 하고 있으나 그 연구기관들은 법령에 차등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음. 행안부에 요청드리는 사항은 연구원육성법에 차등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도화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이재원 이사 말씀처럼 출연금을 연구원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매년 논란이 되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지방세연구원과 공기업평가원과 같이 인구, 재정자립도 등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임. 시뮬레이션에 따라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액 50%, 차등 50%로 가는 것도 유불리에 따라 이견이 있음. 기준을 만들 경우 내년에는 10% 차등을 적용하고, 매년 차등 폭을 늘려 최대 50%까지 차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인구, 재정 등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지자체 간 논란이 없으며, 연구원에서도 안정적인 출연이 될 것으로 봄.

(서울특별시) 저희도 의회에서 출연 동의 자체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임. 연구원에서 연구받은 결과물이 도움되기보다는 2억5천만원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결과를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의원들이 말씀하심.

(인천광역시) 의원님들은 연구원에서 시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음.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함. 지방의회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의원들 설득할 수 있음. 타 시도에서 의견 주었듯이 법령 근거가 있으면 출

연금 요청에 용이할 것임.

(김태영) 연구원이 '84년 출범하였는데, 그 때는 지방자치시대가 아니었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써 인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문제가 발생함. 문제해결 첫 번째 방법은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맞게 국가에서 예산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함.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다른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의장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장이 됨. 지방의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고,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원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봄.

(전라북도)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인지, 의결하는 자리인지?

(이사장)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전라북도) 17개 시도에 해당되는 일이므로 가안을 만들어 각 시도의 의견을 듣고, 시도 자체 회의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중요한 것은 서비스임. 서비스 양을 17개 시도에 균등하게 할 경우 균등 출연이 명확하다고도 봄. 출연금이 차등될 경우 문제 발생할 경우도 있음. 출연금 차등에 따른 연구과제 차등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시도 자체 논의가 필요함

(이사장) 연구를 의뢰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음. 광역 뿐만아니라 기초 단체에서도 연구원의 연구노하우를 토대로 지자체에 특화된 연구 의뢰가 많음. 연구를 맞춤형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연구원에서는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지자체의 연구 수요에 100%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광역에서는 출연금 이외로 용역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음. 상근직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이 확보되어야 상근직 박사급, 석사급 연구인력을 확보해야만, 맞춤형 연구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 여러 이사님의 소중한 도움 말씀을 참고하여 정리하여 내년 이사회에 보고드리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차근차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2021. 12. 2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겸 이사장 김 일 재

□ 출석이사 20인(이사장 포함)

김일재, 윤종진, 임상규, 김명선, 김의승(박경환), 김선조(송삼중),  
김정기, 여중협, 문영훈, 유득원(박인범), 안승대, 김성기, 최원용  
(허승범), 박천수, 신용식, 이창규(구상), 강승구, 명창환, 황명석  
(최유복), 조영진(장재혁), 허법률(윤상현), 강현수, 김태영, 김재훈,  
이재원, 권명중

※ (괄호)는 대리참석자

□ 참석 직원

부원장 박해육,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소장 조기현,  
기획조정실장 홍근석, 자치분권제도실장 주재복  
지방재정실장 신두섭, 지역포용발전실장 박승규  
기획총괄부장 김상기, 재정투자조사부장 김남주  
재정투자평가부장 함윤주, 기획예산과장 이용애  
총무과장 김상우

#관련 사진